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

'보시'는 이익추구의 경제행위와는 달라

불우한 이웃 돕는 것이 참불교의 실행적 가치

불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활태도를 뒤돌아보고, 거기서 경제와의 관련된 원리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전 젊은 시절의 싯다르타는 인생의 '고(苦)'에 대한 의문과 고민 속에서 장래의 국왕이 될 지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그리고 당시 수행자의 전례에 따라서 가르침을 구하여 여러 지역을 편력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깨달아감에 따라서 그 가르침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윽고 가혹한 단식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엄격한 수행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싯다르타는 죽음의 심연에까지 빠져든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음을 전폐한 단식 고행의 진행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 싯다르타는 고행을 중지하고서 바로 옆에 흐르는 네란쟈다 강에서 목욕을 했다.

그는 오랜 단식으로 인해 체력이 매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는데, 이때 인근마을의 처녀가 가져다 준 우유죽을 마시고는 드디어 체력을 회복하여 건강을 조절하게 된다. 그때 싯다르타와 함께 수행정진하고 있던 도반들은 그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그의 곁에서 멀리 떠나가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체력을 회복한 싯다르타는 여전히 보리수 나무 밑에 홀로 앉아 조용히 명상에 들어가 정진을 계속했다.

항마성도(降魔成道)상을 보면, 부처님의 득도(得道)를 훼방하기 위해 악마 '마아라'가 괴물의 무리로 위하(威?)하고, 요염한 미녀로 유혹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활을 쏘면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고, 화염을 퍼부으면 천개(天蓋)가 되곤 했다. 이에 악마 '마아라'는 속세의 제왕(帝王)으로 받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제발 제왕의 그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고 속삭이는 듯 작은 소리로 유혹했지만 거절했다.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치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의 교조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빛'으로 우러러 받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경제에 관한 관련성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수행과정에서 단식에 의한 고행의 무의미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음식의 부정이야말로 실제 도(道)를 닦는 생활에서 경제의 완전 부정이며, 이는 현실에서 불교수행을 할 때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한편, 명상을 할 때의 악마의 유혹에 의한 교훈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지라도, 경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불교는 세속적인 경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 극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의 중도(中道)적 자세가 석가세존의 수행과정 속에 체험적인 이야기로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인도는 이미 화폐경제가 번영하고 있었지만, 석가세존은 예수와 같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당시 왕성한 상업활동으로 대부호가 된 사람(長者)도 기쁘게 그의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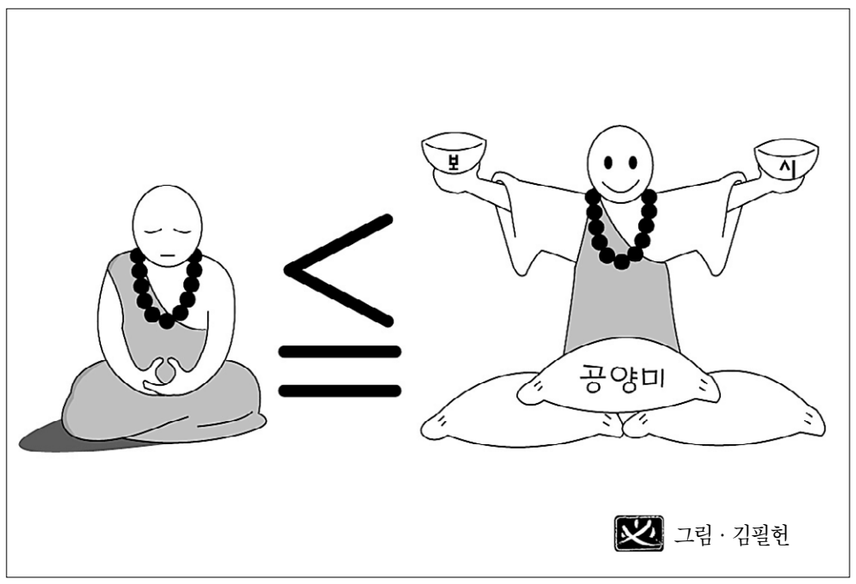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초기 불교경전에는 '우선 생계 유지를 해결한 다음 도(道)에 이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뒤에 대승불교 즉 출가자만을 구제하는 상좌불교(上座佛敎)에 대해 재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중불교(북방불교)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교단이 출가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교단의 공유재산으로서 준비기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승불교 교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공유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불교행(行)의 출발이 보시(布施)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보시정신의 일례로서 일본에서 어떤 신심깊은 불자가 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근본경전을 출판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해서 모은 귀중한 돈을 갑자기 닥친 기근에 고생하는 많은 서민의 구제에 보시했다는 얘기가 있다.

물론 불교에서 '보시'는 이익추구의 경제행위와는 다르다. 보시는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마음가짐이다. 다만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베품을 계산하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따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무슨 가치를 가지겠는가. 그런데 과연 가치 있는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얼마나 될까? 양극화(兩極化) 사회로 깊어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익명의 독지가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등의 소식은 한 줄기 밝은 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 밑에 좌선수행하는 것보다도 우선 배고픈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참불교의 실행적 가치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는가?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③ 멈춤과 선택

즐겁고 의미 채우는 '주도적' 선택이 필요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인간에게만 자아인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렇게 천부(天賦)의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오만한 서양 이론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프로그램 된 대로 외부에서 오는 신호와 자극에 대응한다. 다윈 학자는 이것이 인류인 우리를 살아남게 한 유전적 입력(入力)의 축적이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이 프로그램의 작동을 가끔은 멈추어 보자는 것이 자기리더십(Self-Leadership)의 시동(始動)이자 코칭의 기본적 접근방법이며, 주도성(Proactivity)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프로그램의 자동실행이 멈추어져야 우리는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 프로그래머라는 진실에 생애 처음 마주치게 된다. 멈추어 바라보아서, 지금까지 실행되어 온 것 외에도, 준비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패키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 B로부터 D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C라는 과정이 있다는 서양 코치들의 말 장난이 있다. B는 태어남[Birth], D는 죽음[Death]. 그렇다면 C는 무엇인가, 'Choose', 즉 '선택'이라는 것이다.

"Stop, Think, Choose."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나 아닌 다른 존재 또는 환경에 의하여 내 삶의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기리더십 첫 번째의 습관이다.

뇌성마비로 생의 기로에 섰던 일곱 살의 한 경혜 양에게 성철 스님과 그녀의 어머니라는 두 분의 코치들은 하루 천 배(拜) 수행이라는 선택지(選擇枝)를 열어 보여 주었다. 당시 그녀가 힘겹게 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회상이 그녀의 자전적 기록 <오체투지(五體投地)>에 실려있다.

2년 전쯤 내가 만났을 때, 말끝이 조금 어눌하고 악수하는 손가락 끝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 그녀는 환한 미소와 튼실한 신체를 지닌 33세의 동양화가였다. 그날 아침도 23년을 하루 같이 천 배의 일과를 수행하고 우리 앞에 서서, 하루 만 배 체험의 실화와 시각 장애자를 인도해 히말라야를 트랙킹 하던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여유 있게 들려주었다. 뇌성마비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프로그램 된 것처럼 보였던 일상을 어느 날 멈추고, 그녀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룩한 놀라운 결과이다. 그녀는 '마음이 현상 세계를 만든다'는 법칙을 웅변으로 설파하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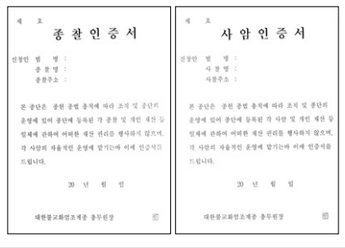
2007년 8월 26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당년 47세의 랜디 포시는 세 장의 MRI 사진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일년 전 췌장암을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었으나, 암은 호전되지 않고 이미 여러 장기에 전이되어 있어, 그에게 남은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어도 몇 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선고였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자기를 동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택, 남은 기간을 불평과 절망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일로 채우겠다는 주도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400명 청중 앞에서 한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 동영상이 UCC를 타고 전 세계에 유포되어 이미 수백만, 어쩌면 앞으로 올 세대를 포함하여 수천만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게 될 그의 위대한 유산(Legacy)으로 결실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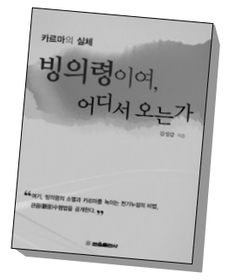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컨설턴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낭비 없는 효과성 높은 삶이란 우리의 가치관이 원칙(또는 진리)에 접근해 이와 일체가 될 때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패러다임에 근거해 선택한 신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상(我相)에 의해 얼마간 비틀려져 있게 마련이다.

불 타는 집[火宅] 속에서 놀이에 빠져 놀고 있는 귀한 자식들을 안전하게 구해 내기 위해 <법화경> '비유품'에 등장하는 장자는,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세 대의 멋진 수레를 제시한다. 코칭의 뿌리를 보여주는 오래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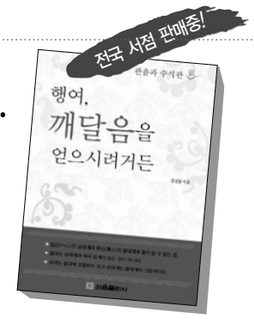
■ 한국코칭센터 고문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 한의원 JASAENGCHO ORIENTAL CLINIC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